

이란과 레바논의 전쟁과 학살: 세계 자본주의의 야만성에 맞서는 전 노동계급의 연대!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은 다시 한번 폐허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또다시 이 지역에 거대한 함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모든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경쟁에 인질로 잡힌 민간인들에게 폭탄과 로켓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병원, 그리고 노동자 거주 지역이 매일 파괴되고 있다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필사적으로 학살을 피하려 애쓰며, 테헤란, 베이루트, 그리고 다른 많은 도시의 거리에 널린 시체들을 넘어서 폐허 속을 헤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평화는 무덤의 평화일 뿐이다!

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란 국가의 적들,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소위 "인도주의적" 임무라는 미명 하에 프롤레타리아들에게 피에 굶주린 성직자 정권에 맞서 거리로 계속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이 다시 한번 성직자 정권의 피에 굶주린 억압에 굴복하여 학살당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 호전주의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이란 국민과 모든 억압받는 자들의 대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한다.

순전히 위선이고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이란 정부의 반응으로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야만성과 혼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 고위 인사들의 죽음을 부각시키며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대국이 독재자들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트럼프는 "거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한때 "세계의 경찰"이었던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불안정화 세력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과 헤즈볼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다른 부르주아 세력들이 개입을 불러와서 중동을 더욱 참혹한 유혈 사태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하다.

우리 스스로 환상에 빠지지 말자! 미국이든 다른 어떤 부르주아 국가든 인류에게 평화, 번영, 또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다줄 수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평화"는 언제나 무덤의 평화였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 콩고... 이 모든 전쟁 지역은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그 어떤 제국주의 세력도 지지해서는 안된다!

이 폐허의 들판은 끊임없는 애국심과 신성한 연합에 대한 외침으로 뒤덮여 있다. 국기 뒤에서, 온갖 종류의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 종교 집단의 광신주의 뒤에서 말이다.

설령 성직자 정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정권도 이란 국민에게 평화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한, 전쟁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벌써 몇번째인 이번의 제국주의 전쟁에서도, 이전의 모든 전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한 이익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편을 드는 부르주아 집단에 동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착취하는 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쟁으로의 격화의 구실이 된 것은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의 유혈 진압이었는데, 이 시위는 악화되는 경제 위기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히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로 인해 촉발되었다.

이란 국민들이 급격히 악화되는 생활 여건에 맞서 일으킨 이 봉기에서 노동자들은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계층 속에 묻혀버렸다. 절망에 찬 이 봉기 속에서 노동계급은 독자적인 계급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랜 투쟁 전통을 가진 이란 노동자들은 치솟는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란에서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멀리 떨어진 "이국적인" 분쟁이 아니다.

우리,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은 모두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란에서 매일 수만 명의 우리 계급 형제자매들이 착취자이자 살인자인 자들의 폭탄과 총탄 세례에 쓰러지고 있다.

이 모든 무자비한 자들이 자본주의 제단에 뿌리는 피는 바로 우리의 피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는 이란과 레바논에서 착취당하고 학살당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

미국 제국주의의 대규모 폭격을 비난하면서도 이란 국가를 옹호하는 자본주의 좌파 및 극좌 정당들의 안일한 태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개입의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은 "국제적인 동맹"의 "합법적인"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전쟁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함정이다.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적이다! 레닌이 국제연맹에 대해 말했듯이, 유엔, 나토... 모두 도적떼이다.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이란(그리고 중동의 모든 국가)의 계급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할 유일한 연대는 바로 "그들" 자신들의 민족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그 자신들의 착취자와 살인자,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와 정부에 맞서는 대규모 투쟁이다.

이란에서 테러와 죽음을 자행하고 우리에게는 대규모 해고,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치솟는 실업률을 강요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지배 계급이다.

우리를 비참함으로 몰아넣고 전쟁이라는 야만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바로 그 착취 체제, 세계 자본주의이다!

현재 이란과 레바논을 휩쓸고 있는 참상은 모든 국가, 특히 자본주의의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인 서유럽의 경험 많은 노동자계급에게 책임감의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중심에 있는 핵심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오직 자신들의 계급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서는 자율적인 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만 전 세계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진흙탕과 유혈 사태 속에서 탄생했다. 이 지역의 노동자 계급은 이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는 끔찍한 참상을 경험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의 물결이 강대국 "민주주의" 국가들의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최초의 세계적 대학살을 종식시키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민족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십자군 전쟁에 맞서 싸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으로부터, 문명을 야만으로부터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자신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이데올로기적 기만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노동자계급은 착취자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인류 전체를 불가피하게 몰아넣고 있는

전쟁, 학살, 그리고 혼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세력이다!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전 세계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전쟁과 착취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국경을 초월하는 대규모의 단결된 투쟁을 펼쳐야 한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가자지구든 이스라엘이든, 어디에서나 언제나 노동자계급은 동족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고, 단결하여 착취자들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적 관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국기 아래 결집하는 것을 거부하고, 총알받이로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며, 국가와 국가 경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배계급이 자신들에게 강요하는 모든 희생을 거부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영구적인 위기인 세계 경제 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에 맞서 대규모로 투쟁한다는 것은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혼란과 야만성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쟁의 필수적인 정치화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다.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계급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전쟁의 야만성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특정 이익들도 옹호할 필요가 없는 계급, 즉 우리의 단결과 국제적인 계급 연대를 재확인해야 한다.

자본주의 쇠퇴가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들과 이란과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학살을 고려할 때,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는 오직 하나뿐이다.

전쟁 타도!

자본주의 타도!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국제공산주의 흐름(ICC)

공개 토론 행사

혁명적 관점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서는 집회, 토론, 그리고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ICC 공개 토론 행사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중동 전쟁의 격화에 대응하여, 3월 22일 영어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 행사를 개최한다.

- 이 제국주의적 유혈 사태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모든 세력에 맞서는 국제주의적 입장 정립.

-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올 파멸적인 미래 분석.

- 격화되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노동계급이 직면한 과제 논의.

토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internationalis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